

고통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본문

하박국 3:17-19

생각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불편함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에서 알지만, 고통은 슬픔,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가지고 온다. 아픔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는, 아픔과 고통은 피할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깨어짐과 어려움을 피할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가지의 아름다운 용기를 주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 (3:18).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병이나, 물질적 어려움, 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의 현실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손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엄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롬 8:38-29).

두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19). 아픔이 왔을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 하거나 “더 깊이 파거나”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그 아픔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와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고후 12:9).

우리는 그리스도 인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간과 하거나, 꺾이 설명하려고 애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의 실상을 받아 들이면 된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약속과 임재로 부터 받은 그 확신인 것이다!

적용

- 세상의 어디에서 고난을 볼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의 삶 속에는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가?
- 아픈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인의 기쁨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누구 이신가?
- 오늘 당신은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의지 하겠는가?

기도

하나님, 우리는 아픔과 고통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는 깨어진 존재 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능력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지금으로 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이십니다. 아멘!

by Matthew Icard

Matthew Icard currently serves as the pastor of youth and families at Clemson Presbyterian Church (Clemson, SC). He's also been a frequent elective speaker RYM's summer conferences (www.rym.org).